



##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이강선 부장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 5: 13)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http://hkb.church)

##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13-16)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 인줄 알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빛을 본 사람이요 더 나아가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맘과 삶 속에 더럽고 추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더럽고 추한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하며 점점 세상과 다른 빛 된 삶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 노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뀔 때 용서, 사랑, 희생, 먼저 화해하고 배려하며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하늘의 삶, 예수님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16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취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삶이 빛 된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비취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한국방문** - 이진수 목사님 가정은 6월 1-17일까지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목사님께서 공석인 주일에는 6월 5일 주일 설교는 오상준 목사님 (행복한 교회) 6월 12일 주일 설교는 이동학 목사님 (샌프란 소망장로 교회 은퇴)께서 전해 주십니다.

## 행사 및 모임

5 월	어버이주일행사	5 월 08 일(주일)
6 월	야외예배	6 월 26 일(주일)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22	5/29	6/05	6/12
대표기도	이강선	홍지윙	조현숙	유영민
헌화성도	김영란	서소연	이삼희	
봉사당번	둥지목장	섬김목장	나눔목장	샬롬목장

##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1 787.22	

##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믿음목장	김정숙	510. 414-8198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동트는목장	홍지원	650. 554-9993	박완주(헝가리집시)
등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b>TEE 성경공부-12 주</b>	12 주

## 목회자칼럼

### 한국 가족 방문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이러면 더 좋을텐데” 라고 느끼고 제가 느끼는 그 아쉬움을 누리고 지내는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지들과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젊었을 때는 주변에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이 가까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 모이는 것을 볼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점점 더 그것이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부모 친지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생일에, 명절에, 특별한 일로 함께 모여서 “식사했다, 함께 여행했다, 함께 만났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러움이 생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귀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노부모님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시지만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부럽게 느껴집니다.

저의 어머니는 텍사스 달라스에 계시고 아내의 친정은 한국에 있기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달라스는 3-4 시간이면 비행기로 갈 수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이곳에 오시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였고, 이제는 나이가 있으셔서 비행기 타는 것이 힘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비우고 찾아뵙는 것도 미안해 하십니다. 저보다 아내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가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쉬운 일이 아니기에 늘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에 나간지도 벌써 몇 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제 팔순이 넘으셔서 일년에 한번 뵙는다 해도 몇 번 정도 밖에 뵙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내도 장남 장녀인데 곁에서 돕지 못하는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게 되면서 어찌 되었든지 찾아 뵙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5 월 31 일 밤 비행기로 저희 가족이 한국에 두 주간 다녀옵니다. 아내만 나가려고 했는데 손자들도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들을 보게 된다고 저희 집 두 아들들도 무척 들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국에 나가 먹은 명량 핫도그와 음식들도 그림다고 하며 ^^ 한국에 나가는 비행기 표를 구입했다고 연락하자 딸과 손자들을 볼 수 있다고 두 분들도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두주간의 시간을 다녀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제가 비우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다녀오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쉼과 힘을 얻고 돌아 올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 시 <i>1:00 P.M.</i>	유년부실 <i>Youth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목장모임 <i>House Church Meeting</i>	매 주 <i>Weekly</i>	목장별 각가정 <i>House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dison &amp; Danielle</i>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